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 3.30일~4.21일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8.5조원(체결기준)
- 국고실장, “일본 IR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추진단에서 검토 및 개선방안 적극 마련할 것”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26.4.22.(수)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재정경제부(반장: 국고실장),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WGBI 편입 개시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총 8.5조원(3.30일~4.21일), 결제기준 6.4조원(4.1일~4.21일)이다. 일본계 자금 유입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 채권의 경우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존재(당일~최대 30일)하여, 거래 체결기준과 결제 기준간 차이 발생

황 국고실장은 “4월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서 국고채 금리하락* 등 국내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5월을 앞두고 한층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전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외국인 자금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고채 금리변동(3.27일→4.21일, %):

(3년물)3.552→3.330(△25.2bp) (10년물)3.915→3.655(△26.0bp) (30년물)3.810→3.535(△27.5bp)

이어서 “지난주 일본 IR(투자자 설명)에서 만난 주요 대형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진단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일본 IR에서 제기된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함으로써 투자자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총괄>	국고실 국채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514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pymwm@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6)
		담당자	사무관	김경찬 (kimkchant@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책임자	팀 장	최재혁 (02-759-5773)
		담당자	과 장	임준혁 (jh.lim@bok.or.kr)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책임자	팀 장	박세혁 (02-3145-7590)
		담당자	조사역	박기택 (pkt@fss.or.kr)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본부 글로벌금융부	책임자	부 장	최순돈 (051-519-1815)
		담당자	팀 장	최극진 (kjchoi@ksd.or.kr)